

데이터센터·5G·스트리밍... 반도체시장 회복 조짐

인텔, 신형 CPU 출시 계획 밝혀
퀄컴-애플, 5G 아이폰 추진 등
빠르면 2분기 반도체시장 정상화

반도체 시장이 곧 회복한다는 기대가 이어진다.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말에는 정상화가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장비 업체 델라노스는 1분기 매출액 3억 500달러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전년보다 22%나 성장한 수치다.

통상 반도체 장비 시장이 활성화하면 반도체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경기지표가 되는 셈이다.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은 최근 데이터 센터의 부품 구매 협상 재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요 증가 요인도 이어지는 추세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화하면서 신형 CPU



IT 업계 상당수는 자체 서버 대신 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AWS 서밋에서 강연하는 삼성전자 정재연 상무. /AWS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인터내셔널의 퀄컴 부스에서 5G를 광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대거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신형 서버 구축 수요 증가에 기대가 실린다.

스트리밍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모습이 다. 클라우드 업체가 게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폭을 크게 늘리기로 한 가운데, 애플을 비롯한 후발주자들도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은 내년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퀄컴과 애플이 다시 손을 잡은 일도

호재다. 당초 업계에서는 애플이 퀄컴과의 분쟁 때문에 5G 모델을 뒤늦게 출시하면서 5G 효과도 한정적일 것으로 우려했지만,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5G 아이폰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웨이퍼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이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일부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는 최근 들어 크게 주춤해졌다. 4월 중순에는 한때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을 정도다. 512Gb TLC 평균 가격은 4달러 초반대에서 보합세를 이루는 모습이다.

D램 가격 역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최근 DDR 8G 기준 평균 가격은 4.19달러다. 가격 하락이 시작됐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폭은 10% 수준으로

로 떨어졌다.

비메모리 시장에는 벌써부터 훈풍이 불어온다. 메모리와 비교해 시장 침체가 크게 심각하지 않았던 데다, AMD와 엔비디아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수주량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TSMC는 최근 2분기 매출액을 7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1분기보다 7.8%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영업이 이익이 30%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봤다. 수요가 살아나는 영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업계도 비메모리 역량 강화에 안간힘이다. 삼성전자가 EUV(극자외선)를 이용한 7nm(나노미터) 제품 출고를 눈앞에 뒀고, 5나노 공정도 개발을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로 파운드리 역량을 키우고 있다.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사업체인 매그나칩 향방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투자·고용확대 등 근본적 처방 필요

>> 1면 '1분기 GDP 성장 0.3%...'서 계속

금리 카드와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투자·고용 확대·소비심리 활성화·구조 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수출확대, 내수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자산 가격 연착륙, 산업 구조개혁 등과 같은 대책들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접적인 고용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영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기업투자→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 7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경에 발맞춰 '폴리믹스'(정책조합) 차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김문호 정치경제부처장 kmh@

작년 세금 378조 건했다... 전년비 9.3%↑

조세부담률 1.2%p 상승한 21.2%
국세예산 268조 보다 25조 더 건혀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건혀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건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건혀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건혀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아마존 '인텔리전트 패키징' 적극 도입

>> 1면 '전자상거래 호황에...'서 계속

한솔제지는 인쇄 용지, 패키징 용지, 특수지, 감열지 등 연간 164만t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고급 포장재로 사용하는 백판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솔제지는 택배상자를 제작하는 골판지 1위 회사 태림포장 인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패키징도 눈길

패키징 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인텔리전트 패키징' 혁명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인텔리전트 패키징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마존은 IoT 기반 '대시 보충 서

비스(DRS)'를 통해 고객 설정에 따라 프린터 토너나 세제, 커피 원두 등 소모품과 생필품이 소진되기 전에 자동 주문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마존 대시 서비스는 '대시 버튼'을 눌러 필요한 물건을 아마존닷컴을 통해 공급받는 서비스다. 대시 버튼은 작은 직사각형 기기에 붙은 동그란 버튼이다.

총무로 인쇄공목도 변신하고 있다. 종이에 찍어낸다는 좁은 의미의 인쇄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것. 일례로, 인쇄공목에 위치한 박스마스터는 패키지 제작에 특화된 인쇄회사다. 박스마스터가 기획한 화장품 제품 케이스는 미국 코스트코에서의 수요가 늘어 수출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보다 제품의 포장에 인기를 끈 사례로 유명하다.

/구서윤기자 yuni2514@

韓 조세부담률 20%... OECD 27위 불명예

덴마크 46% > 스웨덴 34% 順

향후 고령화 등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 절실한데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 있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를 분석하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 개발도상국이 주로 포진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45.9%)가 첫 손에 꼽힌다. 스웨덴

(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속한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 견준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한다. 통상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에서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